

공주 · 부여지역의 백제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서 만 철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백제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지는 지역 여론이 수년전부터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신라 유적과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백제의 유적도 등재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구색 맞추기 식의 발상이 아닌 진정 1,500년 전 동북아시아의 문화중심으로서의 백제문화가 진정으로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음을 밝히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세계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UNESCO 산하의 세계유산위원회 주관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재되며, 그 종류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으로 나누고 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물군, 유적지 등을 뜻하는 것이고, 자연유산은 지구의 진화단계를 나타내거나 초자연적인 자연현상, 지질학 생물학적인 진화나 인간과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현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동 식물의 서식지 등을 뜻한다. 또한 복합유산이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유산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종묘,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을 등재시키고 이어 1997년에 창덕궁과 수원화성을,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을, 2007년에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자연유산에 등재시킴으로서 문화유산 7건과 자연유산 1건을 등재시킨 바 있다.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유산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공주-부여에는 백제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다. 공주와 부여가 각각 백제의 도읍지였었기 때문에 당시의 백제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 1〉 공주의 공산성과 고마나루

공주의 공산성 송산리고분군(무명왕릉), 정지산유적, 수촌리고분군과 부여의 부소산성, 청마산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등이 그것이다. 크게 보면 성곽(공산성 부소산성 청마산성), 고분(송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 사찰(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등이다. 평소에는 성곽에서 살다가 전쟁이나 질병, 흉년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찰을 찾아가 종교에 의지하고, 다시 죽으면 묻히던 곳이다. 백제인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죽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공주와 부여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백제문화는 고구려문화나 신라문화와 더불어 작게는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민족문화를 형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기능하였고, 크게는 중국 일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동아시아의 글로벌화를 주도한 주역이었다. 백제문화가 이웃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은 일본 땅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당시의 유적을 통해서도 한눈에 알 수 있거니와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고구려문화나 신라문화보다도 백제문화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데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선진문화라면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달

려가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다시 일본에 전해주는데 인색하지 않았기에 일본의 고대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은 더더욱 각별했던 것이다.

왜 공주-부여인가

물론 그러한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왜 공주-부여뿐이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백제가 처음 건국한 곳은 서울이고, 마지막에는 익산 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에 도읍하고 있었던 기간은 약 500년에 이르고 있어 전체 백제 역사 700년의 2/3가 넘고, 익산에도 왕궁리토성 마륵사지 쌍릉 등과 같은 성곽과 사찰과 고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너무나도 현대화 되어버려 백제인의 숨결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풍납동토성이나 기계적으로 복원해 놓은 석촌동고분의 모습에서 백제를 찾기란 쉽지 않다. 세계유산이 된다는 것은 세계인이 우리 문화유산이 중요성을 인정하다는 것이지만,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생활의 편리함만을 좇아 옛것을 지키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인정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사진 2〉 부여의 정림사지와 백마강

익산 또한 왕궁리토성이 과연 백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의문이 남아있는 만

큼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중요한 세계문화유산 선정기준인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명문을 통해 미륵사지와 선화공주의 관계가 의심받게 된 만큼 쌍릉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라진 백제문명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는 현재 공주-부여에서만 가능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백제문화재들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에 우선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냥 있어도 되는 문화재에 무슨 투자가 필요한가 등 부정적인 우려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결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일단 되면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으며 그 부수적인 효과로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일본 관광객의 숫자는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근본 목적은 인류 전체를 위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달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주목하는 백제문화를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동안 관심 뒤편에 묻어두었던 백제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앞장설 때 백제문화의 우수성도 한층 빛날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